

『쓰레즈레구사(徒然草)』의 유직고실(有職故實)적 단(段)에 관한 고찰

엄인경*

uik6640@freechal.com

차례

1. 시작하며
2. 「유직고실(有職故實)」의 의미를 둘러싸고
3. 시대에 대한 전코(兼好)의 인식
4. 『쓰레즈레구사』에 보이는 「유직고실」 관련의 단(段)
5. 『쓰레즈레구사』를 통해서 본 중세 「유직고실」의 의미
 - 5.1 고실설화(故實說話)와의 관련성
 - 5.2 유직고실과 신도(神道)
6. 맺으며

요지

『徒然草』를 구성하는 내용범위는極めて多岐にわたっている。多様な内容の中に有職故實的な章段と呼ばれる一群がある。有職故實的章段は、作品全体のなかでかなりの比重を占めてはいるが、積極的に語られたり意味合いを問われたりしたことはあまりなかった。本稿では、まず有職故實の意味を察し、兼好の生きた時代における有職故實の意味を追及してみた。兼好は神道關連の家の出で、出家はしたものの時代と自分の身分及び時に對する正確で鋭い觀察眼をもっていた人物である。兼好が生きていくためにとった方便が有職故實だったともいえるだろう。そういう見方がとれるなら、『徒然草』の中の有職故實的な章段は、今までの通説通りに單純な趣味的記録と見るには違った感じで見えてくる。作品で一番最初に有職故實に關する内容が登場するのは第33段と第34段である。個別記録としてではなく、前段とのつながりを積極的に見つけだそうところろみた。作品の内面での問題だけではなく、『徒然草』の有職故實的章段は中世の説話集ともかかわりがあると思われる。故實說話と呼ばれる類がある。公事という部をもつ説話集には『江談抄』『十訓抄』『古今著聞集』『古事談』などがあるが、祭りをはじめ年中行事、ものの起源などへの深い關心が見られる。『徒然草』の有職故實的な章段の一番主流といえる内容と重なることがわかる。そういう段の指向というなら、それは話題に對する典據及び本説、根元または本質であろう。動亂の時代に、ものごとの本來の意味と起源を根據とする法式と典據をたいせつに扱うこういう章段は、当時の權威と名分をつかみだそうとする努力の一環から出たものとみることができよう。一方、『徒然草』の思想的側面をいうとき、儒教・仏教・道教との關連性の上で論じられる場合

*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 박사수료

が多く、神道との関連性ではあまり語られたことがない。しかし、当時の神道側の状況をみていくとき、見過ごせないのが、道教と神道の密接性である。兼好の時代、神道界では鎌倉仏教の隆盛に對する對抗意識から著作活動なども盛んだったが、その理論を体系化し論理を展開するとき老莊思想を援用しているからである。これを考慮にいと、宮廷を中心にする規範から出發する有職故實は、天皇をその頂点に置く神道と、決して無關係ではないことがわかる。本質にこだわる『徒然草』内の表現と有職故實的な内容の叙述とは、神道の側面にまでつながると思われる。

키워드 : 유직고실(有職故實), 겐코(兼好), 『쓰레즈레구사(徒然草)』, 고실설화(故實說話), 신도(神道)

1. 시작하며

『쓰레즈레구사(徒然草)』를 구성하는 제재의 범위는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 속에 유직고실(有職故實)적¹⁾인 데가 있는 단(段)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있으며, 작품 전체로 볼 때 양적으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직고실적 단의 연구를 살펴보면 유직(有職)에 관한 지식의 나열이나 단순 메모 정도로 치부하거나, 겐코(兼好)의 상고(尙古)취향에 편입시켜 파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쓰레즈레구사』 각 단들의 내용이 독립적이라는 의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포본(流布本) 등을 통해 근세 이후에 많이 읽힌 『쓰레즈레구사』의 형태를 통해, 단들이 각각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향수되면서 한 가지 주제와 관련있는 단들이 발췌되어 분석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쓰레즈레구사』는 여타 고전 작품에 비해 작품 전체의 통일적 주제나 작품의 본질 측면에서 미약한 연구성과를 가지게 되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관념적인 내용을 쉬운 문체나 적절한 비유로 풀어낸 단들이 분석과 관심의 초점이었던 반면, 『쓰레즈레구사』 중에서 가장 의외되었던 내용은 유직고실(有職故實)적 내용이 담긴 단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들에 관한 대표적 평가는 ‘문학적, 문화적 전통만큼의 적극성은 없는 것 같다(文學的、文化的傳統ほどの積極性はないものようであ

1) 조정이나 무가의 예식(禮式), 관직 등에 관한 예로부터의 법식을 가리키는 말로 자세한 의미에 관해서는 2절에서 언급한다.

る)라고 하고, ‘이 수필의 통일적 방면에서 보면, 가장 불순하고 주변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데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この隨筆の統一的方面からすれば、最も不純で周辺のな位置を占めるに過ぎないと考えられる)’²⁾고 한 야스라오카 고사쿠(安良岡康作)씨의 언급을 거론할 수 있다. 이런 평에서도 알 수 있듯, 수필문학이라는 장르의식이 강조되면서 작품 전체 내에서 이 「유직고실」적 내용이 담긴 단들이 도외시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나 야스라오카씨가 말하는 ‘적극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향한 적극성인지 그 기준이 명백하지 않으며, ‘수필의 통일적 방면’이라고 내세우는 의미도 지나치게 모호하다. 겐코에게 수필문학의 창작의식이 분명했는지는 남북조시대(南北朝時代)를 전후한 일본의 중세시대의 글쓰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재고한 후에 언급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을 안은 상태에서 본질이 해명되지 못한 수많은 단들이 방치되거나 혹은 무시된 상태로 『쓰레즈레구사』의 주제나 통일성이 논해진다고 해도 그것은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본고에서는, 『쓰레즈레구사』라는 작품의 본질에 접근하기 위해, 상당부분을 차지하면서도 여태껏 통일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거나 도외시되던 「유직고실」적 내용이 담긴 단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유직고실이 갖는 의미와 시대와의 관련성을 파악해 보고 겐코가 시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고찰해 보겠다. 그리고 근세 이후 이미 방대한 주석서들을 통해 연구된 『쓰레즈레구사』 내용의 해석을 바탕으로 유직고실적 단이 작품 전체 속에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해석될 수 있는지 분석해 보겠다. 이를 통해 유직고실에 관한 내용이 전체적으로 가지는 의미에 관해 천착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중세시대에 많이 출현한 설화집(說話集) 내의 일련의 고실설화(故實說話)가 존재한다는 점, 겐코와 신도(神道)가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통해 중세시대의 유직고실이 더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유직고실(有職故實)」의 의미를 둘러싸고

「유직고실(有職故實)」은 근세에 성립된 용어로 원래 「유직(有職)」과 「고실(故實)」

2) 安良岡康作(1974) 『徒然草全注釋』下、角川書店、pp.603-604.

은 다른 의미를 가진 말이었다. 「유직」은 「유식(有識)」이라고도 쓰며 헤이안(平安)시대에는 박식함 자체나 박식한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었고, 중국과 일본의 역사나 문학을 비롯하여 조정내의 법도나 예절에 정통한 사람을 칭하는 말이었다. 그러나 중세에 들어선 이후에는 의미범위가 협소해 지면서 조정의 의례상 선례(先例)나 고실에 통달한 사람을 가리키게 되었으며 이윽고 공적인 의례나 행사상의 법식 그 자체를 지칭하게 된 것이다.

「고실(故實)」도 옛날 일 외에 실례나 오랜 예법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던 말이었으나, 점차 「유직(有職)」과 동의화되어 법식을 말하게 되었다. 그러나 중세가 되면 귀족들의 「고실」에 대해 무가(武家)의 「고실」이라는 측면도 성립되었고 무사들의 시대인 만큼 「무가고실(武家故實)」의 의미가 오히려 강화되어 갔다.³⁾

이와 같이 「유직고실」이란 법식 및 규범을 일컫는 의미이다. 특히 궁정과 귀족, 무가 등 지배층들이 말하는 질서기반을 말한다. 겐코(兼好)가 당시의 권위층과 연계하여 자신이 중심지(京)에 있으면서 일종의 권위를 확립하는 중요한 세속적 업무로 「유직고실」을 생각하였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⁴⁾ 겐코가 이러한 「유직고실」에 관한 내용을 『쓰레즈레구사』에 상당수 기록하고 있는 이유를 생각할 때, 그가 실제 놓인 환경과 신분에 대한 의식에 주목하는 것도 유효한 방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시대에 대한 겐코(兼好)의 인식

겐코에 관한 전기(伝記)는 명확하지 않으며 중세 이후에 출현한 많은 위서(僞書)의 기록 등에 의해, 그의 출가나 은둔생활을 둘러싼 부분 등이 창조되어 이미지화된 내용이 상당부분이다. 위서에 실린 내용의 진위여부와 위서 자체의 가치 등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많고 대부분 부정적인 자료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위서에 대해서 재조명할 필요성과 그 가치를 찾아보려는 노력이 최근 중세연구자들 사이에 대두하고 있다.⁵⁾ 본고

3) 유직고실의 정의, 범위, 자료, 연구사 등은 가와바타 사네히데(河鱈實英)(1978)의 저서 『有職故實』(塙書房)의 서설에 상세하다.

4) 司馬遼太郎·山崎正和對談 「徒然草とその時代」 『國文學—解釋と教材の研究』7月号、學燈社、1972

5) 小林一彦(2003)의 「僞書論をこえて」(『文學』11・12月号、岩波書店)는 가론서에 관한 논고이나 위서의 가치에 대한 재고를 논한 점에서 흥미롭다.

에서는 가문 및 신분상의 특성 등 사적(史的)으로 확실한 사실을 중심으로 하여 타(他)작품에 그려진 묘사나 위서 내에서 다루어진 내용 중에서도 시사점이 있는 부분만을 방증(傍証)으로 삼아 겐코가 게이시(家司)라는 신분으로서 지녔던 특징을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겐코의 전기 등에 관한 연구를 통해 겐코의 가문과 환경에 대해 접근해 보기로 한다.6) 『존비문맥(尊卑文脈)』에 따르면 겐코는 우라베(卜部)씨의 일족인 요시다(吉田)씨이며 신도와 관련이 깊은 가문의 출신이다. 가마쿠라(鎌倉)시대에 요시다 일가는 4위(位)나 5위가 오를 수 있는 최상의 지위였다. 겐코의 아버지 요시다 가네아키(吉田兼顯)는 종 5위하(從五位下)에 상당하는 관직에 올랐고, 형인 가네오(兼雄)는 종 5위상(從五位上)까지 올랐던 것으로 보인다.

『쓰레즈레구사』의 서단(序段)에 이어지는 제1단에서는,

현데, 이 세상에 태어나니 바랄만한 것이야말로 많은 것 같다. 천황의 지위는 너무도 경외스럽다. 황자, 황손 등 후예까지 인간의 종류가 아닌 것이 실로 존귀하다. 섭정관백(攝政關白)의 모습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 계급도 도네리(舍人) 등의 직위를 받은 정도는 대단해 보인다. 그 자식이나 손주까지는 영락하더라도 여전히 기품이 있다. 그보다 아래 계급의 사람은 신분에 따라 때를 잘 만나 거들먹거리는 얼굴을 해도, 스스로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주 실망스럽다.

(いでや、この世に生れ出でば、願はしかるべきことこそ多かめれ。御門の御位はいともかしこし。竹の園生の末葉まで、人間の種ならぬこそやむことなき。一の人の御有様はさらなり、ただ人も、舍人など給はるきははゆゆしと見ゆ。その子、孫までは、はふれにたれど、猶なまめかし。それより下つ方は、ほどにつけつつ時に遇ひ、したり顔なるも、身づからはいみじと思ふらめど、いとくちをし。)7)

라는 인간론이 전개되는데 천황(御門)의 지위를 그 첫째로 놓고 그에 이은 황손, 섭정관백 이하 점차적으로 낮은 계급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중세는 가문의식이 이미 확립되어 있던 시기였다. 겐코는 요시다 가문의 본류(本流)도 아니었으며, 더구나 장남도 아니었다. 자신이 오를 수 있는 직위 및 신분상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 할

6) 대표적인 논저에는 富倉徳次郎의 『卜部兼好』(吉川弘文館, 1993), 風巻景次郎의 「家司兼好の社會圈」(『西行と兼好』(角川書店, 1971), 島内裕子の 『徒然草の内景—若さと成熟の精神形成—』(放送大學教育振興會, 1995) 등이 있다.

7) 이하 『徒然草』본문은 현존 최고 필사본인 正徹本을 底本으로 하는 久保田淳校注의 新古典文學大系39(岩波書店, 1989.1) 『方丈記 徒然草』에서 인용한다. pp.77-78.

수 있을 것이다. 방선 부분을 다시 인용하면 다음과 같은데 하급귀족에 관해 운운하기를

그보다 아래 계급의 사람은 신분에 따라 때를 잘 만나 거들먹거리는 얼굴을 해도, 스스로는 훌륭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아주 실망스럽다.

(それより下つ方は、ほどにつけつつ時に遇ひ、したり顔なるも、身づからはいみじと思ふらめど、いとくちをし。)

라고 비판조로 말하고 있다. 단순 비판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겐코 자신이 하급귀족의 집안 출신이라는 점과 ‘때를 잘 만나(時に遇ひ)’라는 표현에 주목하여야 한다. 다음 제155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이기 때문이다.

세상을 따르려는 사람은 우선 때를 잘 알아야 한다. 순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일은 남 귀에도 거슬리고 마음에도 들지 않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때를 잘 이해해야 한다.

(世に従はむ人は、先機嫌を知るべし。つるで悪しきことは、人の耳にも逆ひ、心にも違ひて、その事成らず。さやうのおりふしを心得べきなり)⁸⁾

제1단에서 ‘때를 잘 만나(時に遇ひ)’라는 표현과 바로 위의 제155단에서 보이는 ‘때를 잘 안다(機嫌を知る)’는 것, 그리고 ‘때를 잘 이해한다(おりふしを心得べき)’는 것은 서로 다른 내용이 아니다. 물론 제1단에서는 신분 낮은 사람이 운 좋게 때를 잘 만나 득세한 것을 비판조로 보고 있기는 하나, 그 비판한 내용이 표현을 바꿔 제155단에서는 처세를 위해 익혀두어야 하는 덕목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다.

겐코의 경우 당대의 세력가 고노 모로나오(高師直)에게 능서(能書)와 유직고실에 관한 지식을 높이 평가받았고 그로 인해 점점도 가지게 되었다는 『다이헤이키(太平記)』의 내용이 있다⁹⁾. 이렇게 본다면 겐코가 때를 파악하여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방편으로 유직고실을 택했다고도 추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쓰레즈레구사』 내의 유직고실에 관한 단들이 주변적이고 산만한 기록에 불과하다는 기존의 통설은 작자 겐코와 시대에 대한 인식, 유직고실의 관계를 간과하거나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8) 텍스트 p.133.

9) 이에 관한 내용은 줄고 『쓰레즈레구사』에 보이는 겐코의 현실인식(『日本研究』 창간호, 고려대학교 일본연구회, 2002)에 상세하다.

4. 『쓰레즈레구사』에 보이는 「유직고실」 관련 단(段)

『쓰레즈레구사』에는 이른바 유직고실에 관련된 내용이 실로 많다. 겐코가 남자로서 갖추길 바라는 요소를 나열하는 제1단 중반부에서,

갖추었으면 하는 것은, 진정한 학문의 길, 한시, 와카(和歌), 음악, 또한 유직에 공사(公事)에 관한 쪽, 남의 귀감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글도 치졸하지 않게 갈겨쓰고, 목소리도 정취있게 박자를 취하며, 곤란해 하면서도 술을 못 마시지는 않는 것이야말로 남자는 멋있다.

(ありたきことは、まことしき文の道、作文、和歌、管絃の道、また有職に公事の方、人の鏡ならむこそ、いみじかるべけれ。手などつたなからず走り書き、聲おかしくて拍子取り、いたましうする物から下戸ならぬこそ、男はよけれ。)10)

라고 하듯이 한문과 음악, 서도 등과 더불어 ‘유직에 공사에 관한 쪽(有職に公事の方)’도 분명 한 요소로 거론하고 있다. 또한 제48단에서는 후지와라노 미쓰치카(藤原光親)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에 대해 고토바인(後鳥羽院)이 ‘유직에 통달한 행위가 참으로 훌륭한 것이었다(有職の振舞ひ、やむ事なきことなり)’11)라고 감탄했다는 이야기나, 제102단의 ‘공사에 상당히 익숙한 자였다(公事によく慣れたる者にてぞ有りける)’12)는 마타고로(又五郎)라는 늙은 잡역병사가 높은 귀족의 실수를 지적하며 몰래 중얼거렸다는 일화를 이야기하며 ‘재미있다(をかしかりけり)’는 서술로 맺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겐코가 유직고실에 대한 남과 구별되는 지식을 지닌-내지는 이해하고 알아보는-사람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작품 내에 유직고실적 내용의 단이 얼마나 존재하는가에 대한 의견에도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13) 유직고실을 어떤 범위로까지 보는가의 의견차이도 그 원인이 되겠지만, 작품의 한 가지 성격으로 단언할 수 없는 단이 많은 것도 큰 이유일 것이다. 극히 대략적으로만 보더라도 작품 전체의 약 4분의 1은 유직고실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셈이 된다.

10) 텍스트 p.79.

11) 텍스트 p.124.

12) 텍스트 p.176.

13) 다치바나 준이치(橋純一)씨는 약 70단, 가라키 준조(唐木順三)씨는 약 20단, 도미쿠라 도쿠지로(富倉徳次郎)씨는 59단, 야스라오카 고사쿠(安良岡康作)씨는 110단이라 하는 등 분류가 다양하다.

유직고실의 정의를 통해 법식, 규범, 질서기반이 유직고실의 내용을 구성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제 이를 『쓰레즈레구사』 전체와 연결시킬 때는 규범과 법식에 대한 단순 기록 및 기술에 겐코가 만족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

『쓰레즈레구사』에서 유직고실과 관련있는 단으로 처음 등장하는 단은 제33단이다.

현재의 궁궐이 만들어져서 유직관련의 사람들에게 보였더니 「아무 곳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기에 이미 천황의 행차일이 가까워졌는데, 겐키몬인(玄輝門院)이 보시고는 「한원전(閑院殿)의 빗모양의 창은 둥글고 테두리도 없었다」고 말씀하셨다니 참으로 대단하다.

새 창은 잎사귀 모양이 들어가고 나무로 테두리는 했으니 잘못된 것이라 고쳐졌다.

(今の内裏造り出されて、有職の人々に見せられるに、「いづくも難なし」とて、既に遷幸の日近く成けるに、玄輝門院の御覽じて、「閑院殿の楡形の穴は、丸く、縁もなくてぞありし」と仰られたりける、いみじかりけり。

これは葉の入りて、木にて縁をしたりければ、誤りにて、直されにけり。)14)

겐키몬인(玄輝門院)이 어릴 적 궁궐의 모습을 기억하여 잘못된 창 모양을 고치게 했다는 일견 단순해 보이는 내용의 유직고실적 단의 내용이다. 그러나 『쓰레즈레구사』가 현재 보듯이 단별로 정확히 구분되는 구성을 가졌다는 선입견으로 인해 편의에 따라 배제되는 단들이 생기면서, 유직고실에 대한 단들이 외면되어 왔음은 이미 서론에서 지적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면 『쓰레즈레구사』가 통일된 하나의 글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제33단의 예도 그 이전 및 그 이후의 단들과의 연계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해석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제28단의 「료안(諒闇)」의 해, 즉 천황이 상을 당한 기간부터 시작하여 제29단, 제30단, 제31단, 제32단은 죽음 및 소멸에 대한 주제로 이어지고 있다. 제29단에도 ‘죽은 사람(なき人)’을 추억하는 장면이 나오고, 제30단에도 역시 ‘사람이 죽은 후의 자취(人のなき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그 자취(跡)에서 이어져 제29단의 종반부는 ‘오랜 무덤은 쟁기에 갈려 밟이 된다. 그 형태마저 사라지는 것이 슬프다(古き塚はすかれて田と成ぬ。その形もなくなりぬるぞ悲しき。)’15)라며 사람 뿐 아니라 사물의 변천과 소멸에 대한 관찰까지도 이야기하고 있다. 이어 제30단에도 역시 ‘지금은 죽고 없는 사람(今はなき人)’

14) 텍스트 p.111.

15) 텍스트 p.109.

과의 일화를 담고 있으며, 다음 제31단에서도 ‘그 사람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들었다(その人、ほどなく失せにけりとぞ聞き侍りし)’라며 역시 죽은 여인에 얽힌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켄키몬인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제33단인 것이다. 『쓰레즈레구사』의 집필시기를 둘러싸고 제33단을 경계로 상당시기의 간격을 두고 쓰여졌을 것이라는 것이 통설인데, 제32단까지의 맥락에서 동떨어진 느낌의 유직고실과 관련된 33단이 등장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미키 스미토(三木紀人)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단에는 단순한 유직고실에 관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한원전(閑院殿)이 1259년 불에 타고 현재의 궁궐이 1317년 만들어졌으며 1330년 켄키몬인이 사망한 역사적 사실을 좇아본다면 앞 단과의 연결선상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¹⁶⁾ 켄키몬인의 사망 시기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쓰레즈레구사』의 집필시기와 겹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켄키몬인의 사망을 켄코가 겪은 사건으로 본다면, 이 제33단은 그 이전 단들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을 떠난 사람에서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어린 시절에 본 건물의 창모양이라는 유직고실을 매우 고령이 된 때까지 기억했다는 켄키몬인에 대한 놀라움이 우선 전달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건물로 시각이 옮겨져 불로 소실되었던 건물이 최근 다시 지어진 것을 보며, 터(跡)에 대한 관찰을 중첩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28단부터 연상과 동일성에 의해 쓰여지면서 시간을 매개로 유직고실이 서술되고 있는 것이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제34단을 살펴보기로 한다. 역시 종래 크게 주목받지 못한 단이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가이코(甲香)는 고동 모양 같은 것이 작고 입 부분이 가늘고 길게 튀어나온 조개의 껍데기이다. 무사시노쿠니(武藏國)의 가나자와(金澤)라는 바닷가에 있는 것을 그 지방 사람들은 「헤나타리라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甲香は、ほら貝の様なるが、小さくて、口のほどの細長にさし出でたる貝の蓋なり。武藏國金澤といふ浦にありしを、所の物は、「へなたりと申侍」とぞ言ひし)¹⁷⁾

대화를 직접 인용한 표현 등을 보아 켄코의 직접 체험이 바탕이 된 짧은 이야기이다.

16) 三木紀人 「歳月と兼好」 『中世文學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1972

17) 텍스트 pp.111~112.

기존 연구에서는 단순 기록적 단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압도적이며, 작자의 관동(關東)지방 체험의 증거로 보는 것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작품의 통일적 측면에서 본다면 이 짧은 단도 단순 기록만은 아닐 가능성이 있다.

제33단의 ‘빗모양의 창(櫛形の穴)’이 겐키몬인의 원풍경(原風景)이었듯이 제34단의 ‘가자나와라는 바닷가(金澤といふ浦)’가 겐코의 원풍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나다 도시노리(稻田利徳)는 『겐코자찬가집(兼好自撰家集)』의 와카(和歌)를 통해 겐코가 침향(沈香)을 수집했다는 논증을 제시하고 있다.¹⁸⁾ 이는 『쓰레즈레구사』 전체에서 집요하게 보이는 후각적 민감성과도 관련이 깊다. 이렇게 본다면 제34단 역시 사전적이거나 전문적 지식의 제시라고 간주하던 기존의 통설에 좀 더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리라 생각한다.

이렇게 유직고실적 단을 집필하게 된 필연성을 천착해 보려는 시도는 이 외에도 단순 기록으로 치부되어 온 많은 유직고실적 단을 작품 내부로 끌어들이고 유기적으로 묶어주어 작품의 통일성을 밝히는 데 상당히 유효하리라 생각된다.

5. 『쓰레즈레구사』를 통해서 본 중세 「유직고실」의 의미

5.1 고실설화(故實說話)와의 관련성

위에서 살펴보았던 겐코가 유직고실에 기록의 의미만을 갖지 않았으리라는 점은, 중세 설화 연구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고실설화(故實說話)라는 설화군의 고찰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고실설화의 연구라는 것은 설화문학 내부에서보다는 고실에 관해 서술된 부분을 취하는 식으로 되어 왔다. 그러므로 설화집 속에 공사(公事)가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특히 연중행사의 의례나 작법 등을 중심으로 고찰하는 작업이 대부분이었다. 일본에서 유직고실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근세의 이세(伊勢)씨 등의 유직가(有職家)를 비롯하여 국학자들의 연구를 거친 것이므로, 설화 속에서 고실에 관한 자료를 발견해 내서 논하는 방법은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¹⁹⁾

18) 稻田利徳 「兼好と沈香」 『文學・語學』第82号、日本古典文學會、1977

19) 山中裕 「故實說話の系譜」 『日本の説話』第4卷、東京美術、1974

공사(公事)에 관한 기사가 어떻게 설화문학 속에 정착해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고단쇼(江談抄)』 『짓킨쇼(十訓抄)』 『고콘초몬쥬(古今著聞集)』 『고지단(古事談)』에 공사(公事)라는 부(部)가 있는데, 특히 연중행사와 그 기원 등에 관한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고실설화의 내용인 연중행사나 각종 공사(公事)에 대한 언급은 『쓰레즈레구사』의 유직고실적 단의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주류적 내용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제221단을 보면,

「젠지(建治), 고안(弘安) 무렵은 가모마쓰리(賀茂祭) 날 방면의 표시장식물로 특이한 모습의 곤색 천 4, 5단으로 말을 만들고 꼬리털에는 등심(灯心)을 달아 거미줄 모양을 그린 외출복에 달고 옛 노래의 심정 등을 이야기하며 건넌 것을 늘 보던 것도, 흥취가 있어 그렇게 하려는 마음이 든 것일까」라며 늙은 도시(道志)들이 재미있어 하면서²⁰⁾ 이야기했다. (「建治、弘安の頃は、祭の日の放免の付物に、異様な紺の布四五段にて馬を作りて、尾髪には灯心をして、蜘蛛の巣かきたる水干に付けて、歌の心など言ひて渡りしこと、常に見及侍しなども、興ありてしたる心ちこそ侍しか」と、老たる道志どもの今日し語り侍也。)21)

라고 도시(道志)라는 늙은 관리들의 이야기를 읊고 있다. 앞에서 시도해 보았듯 전후단과의 맥락 속에서 살펴본다면 제219단부터는 음악에 관한 것이 화두가 되어 그것이 제220단에서도 이어지고 있으며, 제220단의 중반부에서는 종소리에 관한 지식을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제221단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후 222단에서는 소젠(宗源)이라는 승려가 불사공양에 관한 질문에 답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유직고실이 매개가 되어 관련성 있는 내용으로 묶인 것이라 파악할 수 있으며, 인물이 매개가 되어 고실에 대한 기원이 서술되는 것이 고실설화와 상통하는 면을 보인다.

『쓰레즈레구사』에 『짓킨쇼(十訓抄)』가 전화(轉化)되어 쓰인 부분을 지적하거나, 『무묘쇼(無名抄)』라는 와카(和歌)설화에서 재제를 취했다는 지적, 설교자로서의 수법이 강조되는 측면에서 『사세키슈(沙石集)』와의 공통성을 제시한 논거가 있다.²²⁾ 관련성이 정확히 지적되는 몇몇 단의 해석과 영향관계 고찰도 중요하지만, 작품 내에 전체적으로 산

20) 원문의 ‘今日し’는 해석이 난이하나, 잠정적으로 구보타 준(久保田純)의 교주(校注) 의견대로 ‘興じ’의 아테지(当て字)로 파악한다. 텍스트, p.292.

21) 텍스트, pp.291-292.

22) 市古貞次『説話文學のゆくえ』『日本の説話』第4巻、東京美術、1974

재해 있는 유직고실에 관련된 단과 설화문학, 특히 고실설화와의 전반적 유사성 및 차이점을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유의미할 것이다. 화제에 대한 전거 및 본설, 본질 등이 유직고실적 단들의 지향점임을 고려하면 『쓰레즈레구사』에서 특히 제200단 이후에 많이 보이는 ‘본문(本文)’, ‘본설(本說)’, ‘본경(本經)’, ‘근원(根元)’, ‘지남(指南)’ 등의 표현²³⁾이 갖는 무게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쓰레즈레구사』에 유직고실에 관한 단이 다수 존재하는 것은 동시대에 엄청난 규모로 출현하게 되는 설화집과 설화군-특히 고실설화-들을 통해 볼 때, 중세라는 시대의 공통적인 관심사였음을 알 수 있다. 동란의 시대에 본래의 의미와 기원을 근거로 하는 법식과 전거를 중요하게 다룬 이런 내용은 현재의 대의명분과 권위를 찾으려는 노력의 일환에서 나온 것이라 생각된다.

5.2 유직고실과 신도(神道)

『쓰레즈레구사』는 그 사상적인 측면이 유교, 불교, 도교와의 관련상에서 논의되어 왔다. 근세의 많은 유학자들에 의해 고(古)주석서를 통해 작품의 유교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으며, 『쓰레즈레구사』를 ‘일본의 논어’라고 칭하기에 이른다. 한편 겐코가 출가한 법사(法師)였다는 측면과, 작품내에 간간히 보이는 불도적 언급이 강조되면서 가마쿠라(鎌倉) 신불교 융성과의 관련상에서 각종 종파와의 영향관계도 논해진 바 많다. 또한 작품 내에 한거(閑居)를 지향하는 면모가 크게 받아들여지면서 노장사상의 영향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렇듯 유교, 불교, 노장사상의 개별적 영향관계뿐 아니라 그 사상들의 융합이라는 기반에서 『쓰레즈레구사』가 성립되었다고 보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쓰레즈레구사』 집필 당시와 유직고실의 의미에 관해 살펴볼 때,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의 하나가 바로 신도(神道)일 것이다. 당시 신도계의 상황을 보면 가마쿠라(鎌倉)불교의 융성에 대한 대항의식으로 저작활동 등이 활발히 일고 있었고, 신도가 이론을 체계화하고 논리를 전개할 때 노장사상(老莊思想)을 원용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⁴⁾ 이는 매우 큰 시사성을 띠고 있는 사실로, 작품 내의 도교적 측면은 당시의 신도계 상황과의 관련성 속에서 재해석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해 둘 것은 겐코가 대대로 신관을 역임하던 가문의 출신

23) 「本文」은 제202단, 「本說」은 제61단과 제202단, 「本經」은 제222단, 「指南」은 제220단, 「根元」은 제225단에 등장하는 용례이다.

24) 島内裕子 「兼好とは誰か」 『西行と兼好』 ウェッジ(東京), 2001. pp.110-111

이라는 점이다. 겐코 자신이 신관으로서의 업무를 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으나, 그와 형제기간인 지헨(慈遍)은 신도이론의 틀 내에서 불교를 초월하는 것으로서 신도를 언급하며 신도의 우위를 논하고, 나아가 천황론과 신도를 결부시킨 사상가로 주목되는 존재이다.²⁵⁾ 겐코의 형제가 신도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공고히 한 인물이었다는 점, 게다가 천황론을 공고히 하기 위해 신도이론을 이용했다는 점이 있으므로 겐코에게 그 영향이 전무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제로 불교와의 관련성에 비한다면, 『쓰레즈레구사』에서의 신도적인 측면은 다루어진 바가 적다. 겐코의 가계가 신관계통이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데에서 그치고, 겐코의 출가와 불교관련 언급²⁶⁾ 및 『이치곤호단(一言芳談)』이라는 법어집(法語集)의 발췌라고 볼 수 있는 제98단 등이 강조되는 경향이 훨씬 강했다. 그러나 중세가 신불습합(神仏習合)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포함하고 있고, 신도(神道)가 스스로의 체계를 갖추어 불교를 능가하기 위해 노장사상을 빌어왔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쓰레즈레구사』내의 도교적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신도의 체계와 논리가 갖추어지는 과정은 ‘천황’에 대한 인식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지헨(慈遍)의 업적이 천황론과 신도의 결부를 공고히 한 것이라는 점은 겐코가 『쓰레즈레구사』내부의 무엇보다도 유직고실적 단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천황과 황족, 그 체제를 받치고 있는 귀족과 신생 무가세력들이 모두 자신들이 전거(典據)로 삼아야 할 것을 유직고실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이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하는 시비의 구분행위 및 그것에 관한 당위성을 언급하는 행위는, 역설적으로 보면, 그러한 것이 필요할만큼 상황이 혼란스러웠다는 것을 반증하는 측면도 있다. 다시 말해서 겐코가 작품 전체에 걸쳐 집요하게 유직고실에 관해 어느 쪽이 옳다, 예전에는 이러하였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가 전범과 규율의 혼란기였고 본질을 찾기 어려워진 시대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것은 당시의 지배층이 자

25) 末木文美士 『中世の神と仏』(山川出版社, 2003) 중 (4)신도이론의 체계화(神道理論の体系化)에 기타바타케 치카후사(北畠親房)와 지헨(慈遍) 요시다 가네토모(吉田兼俱) 등의 업적에 대해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26) 불사(仏事)는 제115단, 제125단, 제188단, 불신(仏神)은 제73단, 제225단, 불전(仏前)은 제157단, 불도(仏道)는 제49단, 제98단, 제116단, 불법(佛法) 제80단, 제194단, 부처(仏)에 대해서는 제1단, 제4단(仏の道), 제16단, 제24단, 제25단, 제72단, 제175단, 제190단, 제243단에 8례 등이 보인다. 그러나 그 표현은 소극적인 경우가 많으며, 불도로 이끄는 계도성보다는 정형화되거나 상투성이 강하다. 이에 관해서는 다른 논고에서 다루기로 한다.

신들의 정당성과 대의명분을 찾기 위해 벌인 노력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유직고실과 신도의 관계성이 밝혀지면 『쓰레즈레구사』에서 무미건조하게만 여겨져 소외되던 많은 단들이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갖게 될 것이다.

6. 맺으며

『쓰레즈레구사』를 구성하는 내용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그런 여러 내용 중에 분류상 상당수를 차지하는 단이 「유직고실」에 대한 단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단들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단순지식의 기록이라는 평가로 그다지 의미있게 해석되지 못하였다. 본문에서는 우선 유직고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겐코의 실생활에서 때를 파악하고 자신의 생활방편으로 삼은 것이 유직고실이었음을 짚어보았다. 유직고실이란 일상과 비밀상의 경계를 규정하는 내용이다. 말을 바꾸면 유직고실이란 규범이나 전거, 본설 및 본질과도 상통하는 말이다. 본설(本說), 전거(典據), 규범 등은 어떤 사항의 경계선을 확정한다는 의미이며, 시비를 가르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사물 및 사안의 보이는 측면보다 그 본질에 더욱 관심을 가진 겐코에게 있어 유직고실은 단순 제시를 넘어 자신의 실생활과 직결된 생동감있는 기술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작품 속에 「유직고실」적 내용이 처음 보이는 것은 제33단과 제34단이다. 이 두 단과 그에 선행하는 단들을 중심으로 분석해 본 결과, 작품 내에서 이러한 유직고실적 단들이 서로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지도 고찰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 대량으로 나온 설화집들 중에서도 특히 고실설화라고 칭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은 고실설화의 소재와 『쓰레즈레구사』의 유직고실적 단의 소재적 측면의 공통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또 다른 각도에서 유직고실적 단에 접근을 하는 방법으로, 이제까지의 연구사에서는 미약하게 다루어지던 신도(神道)와의 관련성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신도 관련 가문의 출신인 겐코는 형제인 지헨(慈遍)의 업적과 작업 등으로부터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신도이론을 천황을 중심에 두고 체계화한 것이 지헨의 업적이라고 볼 때, 신도와 겐코가 쓴 유직고실적 단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유직고실은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궁정 및 지배계급들의 규범이었기 때문이다.

진코는 규정과 비(非)규정, 그리고 경계를 가른다는 것과 그 경계선의 붕괴라는 측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다름아닌 유직고실이었을 것이다. 천황을 중심에 둔 신도이론은 역시 천황을 중심으로 하는 궁정과 지배층의 규범인 유직고실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를 작품 내의 구체적 표현을 통해 밝혀보는 것은 추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참고 문헌

- 市古貞次(1974) 「説話文學のゆくえ」 『日本の説話』第4巻、東京美術
 稲田利徳(1977) 「兼好と沈香」 『文學・語學』第82号、日本古典文學會
 風巻景次郎(1971) 「家司兼好の社會圈」 『西行と兼好』、角川書店
 河鱈實英(1978) 『有職故實』、塙書房
 小林一彦(2003) 「偽書論をこえて」 『文學』11・12月号、岩波書店
 司馬遼太郎・山崎正和對談(1972) 「徒然草とその時代」 『國文學一解釋と教材の研究』7月号、學燈社
 島內裕子(1995) 『徒然草の内景一若さと成熟の精神形成一』、放送大學教育振興會
 _____(2001) 「兼好とは誰か」 『西行と兼好』、ウェッジ(東京)
 末木文美士(2003) 『中世の神と仏』、山川出版社
 富倉徳次郎(1993) 『卜部兼好』、吉川弘文館
 三木紀人(1972) 「歲月と兼好」 『中世文學の研究』、東京大學出版會
 安良岡康作(1974) 『徒然草全注釋』下巻、角川書店
 山中裕(1974) 「故實説話の系譜」 『日本の説話』第4巻、東京美術